

**하나님은 부재중?**

*그분이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시다는 교리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대는 '부재자 하나님'의 시대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듯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현재 곁에 있는 분'에 대해 말하듯 하는 경우는 드물다. 더욱이 그분께 말씀 드리는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은 더욱 드물다. 그러나 아기가 엄마와 떨어져 있으면 만족할 수 없듯이, 태양이 없으면 지구상의 삶이 가능하지 않듯이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만족하거나 건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분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본래 뜻이었다면, 그분의 임재를 꼭 필요로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다! 성경과 우리의 도덕적 이성 은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 자신들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두려움과 당혹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망각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마음은 언제나 편하지 않다. 여호와와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요나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갔다. 자신의 개인적 죄를 날카롭게 의식한 베드로는 주님의 면전에서 도망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떠나주시기를 간청했다. 인간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막상 그분 앞에 서면 편하지 않다. 이것은 죄가 우리 안에 만들어놓은 '도덕적 자기모순의 심리'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다는 개념은 어떤 기독교 교파의 교리 선언에도 나와 있지 않다. 이런 교리를 믿는다고 감히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건한 신앙인들은 그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기피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의 믿음을 더 잘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 신조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 특히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다. 이런 우리의 언행에 근거해 판단할 때 나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저쪽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악한 짓이 아니라면 그분이 눈감아주시는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이런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그토록 많은 허튼 짓을 주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독교 사역을 위한 계획을 세우느라 너무 바쁜 사람들은 세상을 복음화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다. 하기가야 '부재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자기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나 버리셨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어찌 그런 생각이 나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심한 경우는 틀에 박힌 것처럼 인습적인 교회들이다. 내가 볼 때, 교회들의 그토록 많은 예배를 견딜 수 없을 만큼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뿌리 깊은 생각이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인다면, 그 집회가 형편없는 모임으로 전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A. W. 토저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중에서-



창립 1974년 11월 3일

주보 제 44권 25호 2018년 6월 24일

\* 표는 일어섬 (Standing if you can)

사회: 기우석 집사

**경배와 찬양 (Praise)**

\* 시작기도 (Opening Prayer)

다같이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같이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최종인 장로

**교회소식 (Announcements)**

사회자

**봉헌 (Offering)** 71장 (새찬50장)

다같이

\* 봉헌송 (Offering Hymn) 1장

다같이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박태열 목사

**성경봉독 (Scripture)** 요한계시록 2:1-5

다같이

**성가대 찬양 (Choir Anthem)**

예향찬양대

**설교 (Sermon)**

박태열 목사

**첫 사랑을 회복하세요**

**첫번째: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파송찬양 (Closing Hymn)** 409장 (새찬309장)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박태열 목사

**[예배안내]**

주일대예배 / 11am  
주일학교 / 11am  
중고등부예배 / 11am  
EM Worship / 1:15pm

**[주중예배/모임]**

새벽예배 / 5:30am(화-토)  
Acts29 기도 / 6am(주일)  
수요예배 / 8pm  
속회 / 매달 1회 셋째주  
성인성경공부 / 1pm(매달 둘째, 넷째주일)  
한국학교 / 3pm-6pm(토)

**[다음주일 대표기도]**

이건형 장로

## 교회 / 교우 소식

오늘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Youth 여름 단기선교를 위한 잔돈모금을 6월 24일까지 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차안에, 집안에 잔돈들 모금통에 넣어주세요. 잘 쓰겠습니다.
- ◆ 성인성경공부가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 ◆ 교회벤 구입을 위한 특별헌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금봉투에 "교회벤 구입"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설교시리즈 (mp3)가 담긴 CD가 나왔습니다.
- ◆ 문열림 주은혜 선교사님 기도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친교실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 ◆ 7월과 8월은 속회방학입니다.
- ◆ 7월 1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 ◆ 새가족교육이 7월 22일(일) 오후 1시에 시작해서 아래와 같이 4주간 진행됩니다. 1주차: 7월 22일(일) 오후 1시; 2주차: 7월 29일(일) 오후 1시; 3주차: 8월 5일(일) 오후 1시; 4주차: 8월 12일(일) 오후 1시
- ◆ 선교캠프가 7월 24일(화) 부터 27일(금)까지 시카고에 Wheaton College에서 있습니다.
- ◆ 보드워 전도가 7월 29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보드워전도 교육이 7월 21일(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 ◆ 친교는 박영자 권사님께서, 제단헌화는 장경숙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 부서별 소식

### [남선교회]

사택청소가 7월 22일(일) 예배후에 있습니다.

### [재직회]

재직회 모임이 7월 15일(일) 예배후에 있습니다.

### [교우/교역자 소식]

- ◆ 박태익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 천춘옥 권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 이정희 성도님 첫째아들 George Lee군과 Jean Pak양의 결혼식이 7월 7일에 있습니다.

### [선교후원]

- ◆ 파송선교사 가정인 문열림 선교사, 주은혜 선교사 (기쁨, 거룩)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문열림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 ◆ 협력선교사 가정인 김희기 선교사, 박경선 선교사 (진서, 진후)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김희기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 [증보기도요청]

- ◆ 찬양사역자, 성가대 반주자, Youth 전도사, Children 전도사를 보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원할수 있도록 제정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회벤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중모임/행사

- 6월 24일(일) 1:00pm 성인성경공부
- 7월 15일(일) 1:00pm 재직회
- 7월 21일(토) 7:00pm 보드워전도 교육
- 7월 22일(일) 1:00pm 새가족교육 1주차  
남선교회 사택청소
- 7월 24일(화)-27일(금) 미션캠프
- 7월 29일(일) 1:00pm 새가족교육 2주차  
2:00pm 보드워전도

### 지난주 일 통계

헌금총액	\$2,993	출석총인원	47
십일조	\$650	KM 본예배	40
주정(주일)	\$393	주일학교	7
감사헌금	\$170		
선교헌금	\$280		
주일학교	\$		
교회벤구입	\$1,500		

## 새가족 등록절차 안내

- ◆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 ◆ 새가족 등록과정: 새가족 교육 (4주)과정을 마치시고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으시면 속회에 배정이 되시고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십니다.
- ◆ 새가족 교육일정: 교회소식란에 교육일정을 공지합니다.
- ◆ 새가족 환영식: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그 다음주일 본 예배시 환영식을 갖습니다.

### 7월 친 교 / 헌 화

1	연선회집사 / 박민자권사
8	최성혜사모 / 최성혜사모
15	박민자권사 / 최미경집사
22	박영자권사 / 이선희집사
29	최미경집사 / 연선회집사

### 교회를 섬기시는 이

담임목사:	박태열
교육협동목사:	박태익
지휘자:	연석윤 반주자:
시무장로:	최종인 이건형
원로장로:	이우인
파송선교사:	문열림 주은혜 (기쁨, 거룩)
협력선교사:	김희기 박경선 (진서, 진후)